

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	보도자료	 한국판두일 <small>대한민국 대전환</small>
2020년 12월 10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과장 이기중(044-201-2551), 서기관 황성철(2555) 환경부 야생조류 시 대응상황반 팀장 장성현(044-201-7245), 사무관 김태운(7257) / 제공일: 12월 10일(총 2매)		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창원 주남저수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확진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와 환경부(장관 조명래)는 경남 창원(주남저수지)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가 12월 9일 확진*되었다고 밝혔다.
 - * 주남저수지에서 12.4일 채취한 큰고니 폐사체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정밀검사 실시
-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해당 항원 검출지역과 주변 철새도래지 일대를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역 강화조치(참고)를 실시한다.
- 농식품부 관계자는 “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(10월 1일 이후 23건)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”으로
 - “가금농가는 차량·사람·야생조류 등 다양한 경로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, 방사 사육 금지,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- 또한, 환경부 관계자는 “철새서식지 방문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,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달라”고 강조하였다.

<참고>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에 따른 방역강화조치

1. 항원 검출지역에 대한 주요 방역조치(농식품부, 환경부)

- ① 항원 검출지점(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) 반경 500m 내 사람·차량 출입 금지,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
- ② 검출 시군 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 금지
- ③ 검출 시군 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운영 중단(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간)
- ④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에 대해 야생조류 분변·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 예찰 활동 강화
- ⑤ 반경 500m 내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야생조류 구조 및 반입 제한
- ⑥ 반경 10km 내 동물원, 동물농장 등 조류 전시·관람·보전시설 점검

2. 위험 권역에 대한 “AI 특별관리지역” 지정 및 방역조치(농식품부)

- * 철새도래지로부터 양쪽 3km 내 지역
- ① 대상 철새도래지에 대한 격리·소독 강화
 - 사람 출입통제 구간 확대, 소형 주차장·출입구에 통제 표시(띠·안내판)
 - 지자체 담당관을 배치하여 출입 통제 및 소독 실태 매일 점검
- ②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(오리, 산란계, 종계 등)에 대한 차단·소독 강화
 - 가금농장(50㎡ 초과) 일제검사, 정기검사도 축종별 특성에 따라 강화
 - 농장 점검 후 입식 허용, 방역점검, 소규모 농장 가금 구입·판매 금지
- ③ 축산차량(사료·분뇨·출하 등)에 대한 관리 강화
 - GPS 단말기 운영실태 및 농장 진입 전 소독 실시 여부 점검